

2008. 6. 2 제192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6. 2 제192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볼티모어市の 생활권 지표 프로그램 'Vital Signs'

문화·디자인

1. 도시 곳곳의 다양함을 연결한 '건축 페스티벌' (런던)
2. '국제 마을 만들기 지침' 수립 (요코하마)
3. 해마다 5월 셋째 주말에 '박물관의 밤' 행사 열려 (파리)
4. '제12회 게이 퍼레이드' 치안 강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산업·경제

5. 영세 숙박시설도 '별' 표시, 숙박등급 인증 지원 (런던)
6. 이민이 경제 발전에 활력소 역할 (영국)

목 차

건강·복지

7. 학생에게 교통·교육 혜택 제공 (브라질 쿠리치바市)
8. 수입 식품 안전 대책 강화 (도쿄)
9. 외국 유학생 유치 위해 매년 50억 원 장학금 지급 (북경)

도시환경

10. 수질 관리 목표로 'TOKYO 고도 품질 프로그램' 실시 (도쿄)
11. 기후변화로 위험해진 야생 보호는 도시계획가 손에 달려 (영국)
12. '클린' 올림픽 개최 위한 환경보호 프로젝트 (북경)
13.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 추진센터' 설치 (도쿄)

도시교통

14. 화물차량 식별 프로그램 홍보 (런던)
15. 연료비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는 카풀 활성화 (런던)

도시계획·주택

16. 시민 건강을 고려한 도시계획 (영국)
17. 미래를 위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영국)
18. 도시와 농업·농지의 공생 관계 (도쿄)

[벤치마킹 사례]

볼티모어市的 생활권 지표 프로그램 ‘Vital Signs’

<주요 내용>

○ 미국 볼티모어市는 ‘볼티모어 생활권 지표 연맹’(BNIA: Baltimore Neighborhood Indicators Alliance) 주도로, 근린 생활권 단위 7개 분야의 40개 핵심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인 ‘Vital Signs’를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음.

- 생활권 지표는 다양한 집단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됐고, 도시 전역에 걸쳐 센서스 구역(Census Tract) 단위로 측정됨.
- 市는 생활권 지표를 통해 지역사회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지 등을 판단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반영함.
- Vital Signs 지표의 7개 분야별 비전과 성과 및 지표는 다음과 같음.

1.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비전	인종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근린 생활권. 市는 풍부한 물리적 유산을 보전하고 모든 주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	
성과 및 지표	잘 유지 관리된 주택	주택 개선을 위한 투자, 주택 상태(공가, 위법 주택)
	인종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근린 생활권	인종 및 경제의 다양성, 자가주택, 주택 부담능력(임대, 자가)

2. 아동 및 가족 건강, 안전, 웰빙

비전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춘 안정적인 가족, 고품질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갖춘 근린 생활권	
성과 및 지표	아동의 안전	안전한 집과 가족, 안전한 근린 환경
	안정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가족	소득 및 빈곤, 가족 자립 기준
	건강하게 출산한 아기	산모 및 아이의 건강
	건강한 가족·아동·개인,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및 예방 진료, 약물중독

3. 노동력 및 경제발전

비전	주민이 일하고 상업지역이 번창하는 도시	
성과 및 지표	취업 기회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교육 수준
	번창하는 근린 생활권의 상업지역	상업지역 투자, 성공적인 비즈니스

4. 위생

비전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성과 및 지표	깨끗한 거리와 동네	청소가 잘 안된 가로와 골목길 비율, 막힌 배수로 비율, 버려진 자동차 비율, 쥐 발생 비율

5. 도시환경 및 대중교통

비전	물리적인 미관과 깨끗한 공기 및 물을 갖춘 장소	
성과 및 지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고품질의 토질과 식생	녹피율, EPA 기준을 초과하는 오존수준 일수, 기온 90°F 일수, 잠재적인 유해폐기물 지점 수, 통근통행시간
	대안적인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자 비율

6. 교육 및 청소년

비전	잘 교육받을 수 있고, 현재와 장래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도시	
성과 및 지표	생산적인 시민으로서 교육받은 학생	학교 중퇴 및 고교 졸업,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대학 진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고등학생, 청소년 진취성 및 리더십
	청소년 학업 성취	출석률, 초·중학교 학업성취도(읽기 및 수학 성적)

7. 주민활동 및 장소성(Sense of Community)

비전	강한 장소성과 주민활동에 의해 번창하고 성장하는 근린 생활권	
성과 및 지표	모든 근린 생활권이 적극적이고 조직화되어 있고 동기가 부여되어 있음.	주민집단(주민협회, 커뮤니티개발공사, 공원·환경보전집단 등) 주민주도의 사업(지역사회가 조성한 공원·정원, 지정 역사건축물 등) 투표참여

<해설 및 평가>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동네’ 차원의 성과관리 운동

– 선진국 대도시는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스마트 도시성장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표 활용을 강조함.

·미국은 국가 근린 생활권 지표 운동을 추진해 왔고, 볼티모어市的 Vital Signs도 그 중 하나임.

- 근린 생활권 단위의 지표 운동은, 시정부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시민이 주도하는 특징이 있음.

○ GIS 등 기술 발전과 풍부한 데이터 기반 활용성 증대

- 과거 1960년대 이후 삶의 질 지표 운동이 있었으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기반이나 정보처리 기술이 미비해 한계가 있었음.
-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 대규모 자료 처리, GIS를 이용한 분석과 시각화 등 기술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다시 부상하고 있음.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조장할만한 이니시어티브(Initiative) 부재

-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명성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일정 부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함.
- 이러한 부분은 방기되거나 공공부문, 일부 시민단체, 부녀회, 입주자회의 등이 담당하고 있음.

○ 시민의 관점과 관심사에 맞춘 생활권 차원의 미시적인 정보 제공 미흡

- 다양한 정보 축적과 통합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 관점과 관심사에 맞게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하는 측면은 약함.
-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생활권 단위의 정보 제공은 더욱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서울시정 정보는 각종 간행물,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지표나 지도, 그림 등을 이용한 정보 제공은 미흡한 실정임.

<벤치마킹 시행방안>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마을 만들기’ 차원의 지표 운동 전개
 - 시민의 자발적인 추진이 어려운 초기단계에는 공공부문에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추진하되, 시민단체·지역주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만들도록 한 후 점차 시민 주도로 나아가도록 함.
 - 초기에는 적극적인 생활권을 정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도록 함.

- 산재된 정보자료 수집과 체계화
 - 소관 부처에 따라 산재한 각종 정보를 시민의 관점과 관심사에 맞게 수집·조직하며, 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지표로 가공할 필요가 있음.
 -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생활권에 따라 현안 문제와 관심사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공통 지표를 제시하되, 각 생활권 단위로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나름대로의 지표를 정하도록 함.

- 다양한 정보전달 방법 이용
 - 생활권 단위의 미시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지도와 방송 등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시민에게 자기가 사는 동네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강점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 서울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고, 정책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함으로써 좀 더 대응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신상영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syshin@sdi.re.kr)

1. 도시 곳곳의 다양함을 연결한 ‘건축 페스티벌’ (런던)

○ 런던시는 도시설계디자인위원회(Design for London) 등이 참여하는 ‘2008 런던 건축 페스티벌’을 대도시 5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 런던 건축 페스티벌은, 전문 강연에서부터 유명 건축물 무료 관람 및 해설 행사, 전시회, 공연, 설치미술전, 선상 관람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 달 동안 여는 세계 최대의 건축 잔치임.

·건축 전문가와 시정부, 자치구, 관련 기업 및 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함.

·2008년의 주제인 ‘Fresh!’에 맞는 지역별 행사가 열리며 평일 저녁과 주말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문화행사가 마련됨.

- 기존의 건축 도보 순례 및 수상보트 순례와 함께 자전거 순례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됨.

·자전거 순례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하며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도시의 환경정책과 건축문화 행사를 연계해 상생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평일 저녁시간 자전거 순례는 보통 2시간, 주말은 4~6시간 정도 소요됨. 행사 홈페이지에서 방문기관 입장료 등을 예약·구매한 뒤 참여할 수 있음.

(www.lfa2008.org/media/LFA2008_springupdate.pdf)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8140.aspx)

>>> 전문가 검토의견

- 2004년부터 시작돼 2008년 3회째를 맞는 건축 비엔날레인 ‘런던 건축 페스티벌’은, 2006년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2008년 행사 규모가 더욱 커져 좀더 광범한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 런던에는 건축적 가치가 높은 기념비적 건축물이 다수 있으나, 건축물 보호를 위해 평소에는 대부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다만, ‘런던 오픈하우스’(9월)와 ‘런던 건축 페스티벌’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됨.

- 가이드 투어, 전문가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런던 내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런던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
- 서울에도 역사적인 것부터 현대적인 것까지 건축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산재해 있음.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런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민의 정체성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문화예술 탐방’ 프로그램에는 전문가가 해설하는 건축물 탐방이 있어, 참가자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참여인원과 시간이 제한적이라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서울시가 2008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서울 문화의 밤’(Seoul Open Week) 행사에 건축물 투어 연계도 고려해볼 수 있음.

/백선희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2. ‘국제 마을 만들기 지침’ 수립 (요코하마)

- 최근 요코하마市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요코하마市 또한 외국자본 기업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 이에 요코하마市는 외국인과 일본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성이 풍부한 마을 만들기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요코하마 국제 마을 만들기 지침’을 수립함.
- 지침을 보면, ‘국제성이 풍부한 마을 만들기’를 국적이나 민족 차이를 넘어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지역 만들기, 해외 관광객 등 일시적인 체류자를 위한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로 정의함.
- ‘외국인이 살기 쉬운 마을’이란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임. 외국인을 지역 구성원으로서 상대하고 그들이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행정기관이나 국제교류단체 등에서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풍토를 만들.
-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은 마을’이란 방문 외국인이 쾌적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마을임. 자국어나 본인이 알고 있는 언어로 쓰인 안내표시 및 팸플릿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함.

(www.city.yokohama.jp/me/keiei/kokusai/foreigner/machi.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요코하마市는 1859년 요코하마 항구를 개항한 후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서양 상인이 찾아들면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짐에 따라 많은 외국투자회사가 진출해 있으며, 매년 많은 외국 관광객이 찾는 도시임.
- 요코하마市가 이미 19세기 후반에 ‘국제성이 풍부한 마을’인 차이나타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공생사회와 지역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21세기 들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국가 경계를 초월한 도시 간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보임.

- 서울시는 현재 글로벌 도시화를 위해 글로벌 존을 지정함. 글로벌 빌리지와 글로벌 비즈니스 존, 글로벌 문화교류 존 등으로 특성화해 ‘외국인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가 요코하마市를 비롯해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존 사업 성공이 급선무임.
- 서울시뿐 아니라 공공단체 및 기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유치하는 다문화 인적자원 정책이 필요함.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3. 해마다 5월 셋째 주말에 ‘박물관의 밤’ 행사 열려 (파리)

- 파리市는 2008년 5월 17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시립박물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제4회 박물관의 밤’ 행사를 개최함.

- 행사의 가장 큰 매력은 한적하게 마음껏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항상 방문객으로 붐비는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작품을 이번 기회에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음.
- 박물관 자체가 유서 깊은 건축 문화재이므로 박물관의 야경을 구경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음.

- 각 박물관의 특별 전시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마술쇼, 뮤지컬 등 각종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됐음.

(www.paris.fr/portail/Culture/Portal.lut?page_id=102&document_type_id=2&document_id=52957&portlet_id=818)

4. ‘제12회 게이 퍼레이드’ 치안 강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제12회 게이 퍼레이드’의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시민 경비대, 사립 안전요원 2000명을 동원하고 앰블런스 30대, 침상 40개를 준비함.

- 2007년 행사 때는 경찰 1000여 명과 앰블런스 14대를 준비했으나, 2008년에는 의사도 14명에서 46명으로, 간호사도 28명에서 55명으로 늘림.
- 2007년에는 12건의 사고가 발생해 60여 명이 치료를 받았음.

- 상파울루 게이 퍼레이드가 점점 전 세계적인 행사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치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찰은 갈수록 커지는 행사 규모 때문에 치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 거리마다 경찰 본부를 설치해 범죄가 발생하거나 의료진이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007년 게이 퍼레이드에서는 노점상이 포도주를 판매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임.

(www.estadao.com.br/cidades/not_cid159296,0.htm)

(www.estadao.com.br/geral/not_ger159368,0.htm)

5. 영세 숙박시설도 ‘별’ 표시, 숙박등급 인증 지원 (런던)

○ 영국관광공사(Visit Britain)가 기존의 숙박 등급을 왕관 모양에서 별 모양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라, 런던 내 영세 숙박시설인 호스텔과 B&B(Bed&Breakfast) 등이 국제적인 숙박등급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런던개발청과 런던관광공사가 지원사업을 벌임.

- 런던개발청은 향후 2년 동안 ‘Get London Graded’라는 사업을 통해 영세 숙박시설 업주에게 무료 사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숙박업체가 인증기관이나 영국관광공사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업체당 400파운드(약 81만 원)를 지원해줌으로써 150개 업체가 신규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임.
-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별 등급을 적용함으로써 관광객이 숙박시설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런던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연간 150억 파운드(약 305조 원)를 쓴 것으로 추산됨.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583)

(www.lda.gov.uk/getgraded)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가 각종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에서 최상위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데는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과 런던관광공사(Visit London)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음.
 - 현재 두 기관은 런던의 현재와 미래를 다듬고 창조하면서 글로벌 최고 도시가 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음.
 - 런던개발청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와 경쟁력강화본부를 합친 역할을 하고 있고, 런던관광공사는 서울관광마케팅(주)과 비슷한 기관임.

- 런던개발청의 영세 숙박시설 인증 지원은 저가·영세 숙박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서울시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줌.
 - 우리나라는 관광호텔에 한해 숙박시설 인증제도(무궁화 등급)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관,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등 중·저가 숙박시설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됨. 즉, 중·저가 숙박시설은 국가나 시정부의 관광 정책적 관리·진흥·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저가 숙박시설의 관광·숙박 단지화를 통해 관광숙박시설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하지만 숙박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정부의 마케팅 지원 정도로는 기존 대실 위주의 영업 관행을 탈피하고 순수한 저가 관광숙박시설로 활성화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관광호텔처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임.
 - 런던과 같이 제도권 밖에 있던 중·저가 숙박시설에 관광숙박시설 지위를 부여해 시설등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설 및 운영 개선을 추진할 경우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

/금기용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6. 이민이 경제 발전에 활력소 역할 (영국)

- 영국의 싱크탱크인 ‘워크 파운데이션’(Work Foundation)은, 지난 12년 동안 발생한 높은 이민 비율이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워크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이민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을 막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공했음.
- 이는 이민이 기존의 고용 및 임금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 관념에 반대되는 의견임.
- 이민이 실업에 영향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민으로 인한 저임금의 상관관계 대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힘.

- 유럽연합은 자유시장 체계, 노령인구 증가, 청년 실업이 영국의 주요 현안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평하고 유동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새롭게 도입한 점수제 이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04751)

건강 · 복지

7. 학생에게 교통·교육 혜택 제공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14~28세 청소년·청년층을 대상으로 교통, 교육, 문화, 스포츠, 레저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 2005년부터 ‘청춘·교육·시민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임.

- 대중교통 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줌. 월 60만 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고 있음.

·장애인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별 교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월 30만 명의 학생이 이 혜택을 받고 있음.

- 학비가 무료인 시립학교 학생에게는 50만 권 이상의 서적을 보유한 시립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시립학교 입학 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2008년 5월부터는 1만 8000명의 시립학교 학생에게 영화, 스포츠 등 모든 이벤트 입장권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3074)

8. 수입 식품 안전 대책 강화 (도쿄)

- 수도권 8도현시(都縣市: 도쿄都, 요코하마市, 사이타마縣, 사이타마市, 지바縣, 지바市, 가나가와縣, 가나가와市)는 제53회 8도현시 정상회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안심 대책을 강화하기로 함.
 - 일본은 지금까지 검역소를 통한 감시·검사체제 구축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을 도모해 왔지만, 잔류농약 기준 등 수출국과 제도 기준이 다르고 수입식품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 대책이 미흡한 상황임.
 - 수입식품 안전·안심 대책 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의 수입신고 증가에 대응해 알맞은 검사를 실시함.
 - 수출국 및 수출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입 사업자에게 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식품 대책을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함.
 - 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4/20i4u200.htm)

9. 외국 유학생 유치 위해 매년 50억 원 장학금 지급 (북경)

- 북경市는 매년 50억 원 이상의 정부 장학금을 북경市 소재 대학 유학생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함. 또한 중국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매년 23억여 원을 투자할 예정임.
 -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현재 18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5만 5000여 명의 외국 유학생이 북경市 76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음.
 - 북경市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더욱 커지도록 지원하고 격려할 계획임.
 -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간 교환학생 제도를 확대해 학점을 상호 인정해 주는 등 교류작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이외에도 市는 23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자학원과 공자서당, 국제 중국어 학교에 지원할 계획임.
- 외국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교사나 교사 지원자에게 국외 중국어 교사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임.
- 현재 북경市에는 13개 대학 및 4개의 중학교가 26개 국가와 지역에 있는 43개 공자학원 및 공자서당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음.

(zhengwu.beijing.gov.cn/gzdt/bmdt/t958734.htm)

도 시 환 경

10. 수질 관리 목표로 ‘TOKYO 고도 품질 프로그램’ 실시 (도쿄)

- 도쿄都 수도국은 최고 수준의 수질 관리를 목표로 ‘TOKYO 고도 품질 프로그램’을 실시함.
 - 도내 71개 정수장 및 송배급수에 대해 WHO가 제창한, 위기관리에 관한 새로운 수질 관리법인 ‘물 안전 계획’을 적용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함.
 - 각 정수장에서는 국제 품질규격인 ISO 9001 인증을 취득하고, 평상시에 ISO 9001에 준하는 품질 매뉴얼에 근거해 수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
 -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ISO/IEC 17025 국제 규격을 인증 받도록 함으로써, 각 정수장의 수질 시스템이 잘 정비되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함.
 - 이 계획을 통해 좀더 높은 수준의 수돗물의 안전성과 맛을 실현함.
 - 관련 노하우를 매뉴얼화해 품질 관리기능인 계획(Plan), 실행(Do), 검토(Check), 조치(Act) 등의 순환과정을 반복하면서 품질을 개선하는 PDCA 사이클에 의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실시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3/20i3sa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TOKYO 고도 품질 프로그램’은, 수돗물이 생산단계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로 전달될 때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상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도쿄都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수돗물 관리체제는, 그동안 서울시가 수돗물의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것에서 시민이 수돗물의 수질과 맛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함. 이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그동안의 불신감을 없애고 시민에게 질 높은 상수도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할 것임.
- 신뢰성이 보증되도록 정수장에서 송배수·급수관을 포함한 모든 수돗물 공급 시설에 대해 평상시 ISO 9001에 준하는 수질관리를 시행하고, ISO/IEC 17025 국제규격의 수질검사를 인증 받는 것이 중요함.
- 수돗물 관리체제에 PDCA 사이클의 정기적인 재검토 과정을 도입해 수도 기술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김영란 도시기반본부 연구위원(yrkim@sdi.re.kr)

11. 기후변화로 위협해진 야생 보호는 도시계획가 손에 달려 (영국)

- 영국자연협회는 기후변화로 위협에 처한 야생과 식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협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해안선 침식과 홍수를 유발하고 야생을 위협에 처하게 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함.
- 제비갈매기와 바다표범이 서식하는 해안이 침수로 인해 위협에 처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실되고 있는 야생 서식지를 대체하는 지역 조성을 도시계획가가 도와야 한다고 관계자가 주장함.
- 해수면 상승은 새로운 야생종을 유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함.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802911)

12. '클린' 올림픽 개최 위한 환경보호 프로젝트 (북경)

- 북경시는 올림픽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해 올림픽 기간 동안 대기질 수준을 표준치에 도달하게 하고자 함.
 - 최근 발표한 '순환경제 건설, 자원 절약형 우호도시 건설 등 2008년 행동 목표'에 북경시의 10대 절약 프로젝트 계획을 포함함.
 - 그 중 하나가 올림픽 환경 보호 및 오염 배출 관련 프로젝트임.
 - 북경시는 정부기구 및 대형 공공건설 시 절약방안, 에너지 고소비 업종에서의 절약방안, 재생에너지 시범 사용, 수자원 절약 및 자원 종합이용과 같은 구체적인 절약 조치를 취할 예정임.

(zhengwu.beijing.gov.cn/gzdt/bmdt/t958264.htm)

13.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 추진센터' 설치 (도쿄)

- 도쿄都是 2008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 및 가정의 온난화 대책 거점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 추진센터'를 설치함.
 - 주요 사업은 '지구온난화 대책 등 관련 보급 계발 활동'과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 절약 지원'임.
 - 지구온난화 대책 등 관련 보급 계발 활동의 구체적인 사업은 지구온난화 대책 상담, 환경 문제에 관한 도서 및 비디오 등 학습 기자재 대출, 지구온난화 방지 이벤트 개최임.
 -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 절약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은 에너지 절약 상담창구 개설, 에너지 절약 진단 실시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제안, 설비를 개보수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운용 개선 기술 지원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3/20i3s800.htm)

도 시 교 통

14. 화물차량 식별 프로그램 홍보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도로교통 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화물차량 식별 프로그램(FORS: Freight Operator Recognition Scheme)을 홍보하기 위해 버밍엄市에서 열린 상용차 전시회에 참여함.
 - FORS는, 동종업체 간 정보를 교환하고 화물차 운행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에서 나왔음.
 - 대상은 런던市를 통과하는 소형 및 대형 화물차량 업주임.
 - 업체 간 정보교환과 우수사례 확산 등으로 화물 분포를 합리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교통혼잡 해소, 충돌사고와 운영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함.
 - 런던교통공사는 업계 관계자에게 FORS 회원가입 시 받는 3대 혜택을 중점으로 홍보함.
 - 3대 혜택은 정부 규제와 처벌사항 등 행정 관련 상담, 업무 향상을 위한 교육·인센티브 혜택,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리는 지속가능한 경영방식 지원임.
-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7935.aspx)

15. 연료비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는 카풀 활성화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지역 주소를 검색해 카풀 대상을 찾을 수 있는 카풀 검색 서비스(www.londonliftshare.org)를 운영함.
-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뒤 행선지와 출발지점을 입력하면 연락 가능한 카풀 대상자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차를 제공하는 측이 연료비 이상의 부당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차주는 차량 보험료나 자동차세 납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카풀 출발지점을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으로 정하도록 권유하는 등 카풀 관련 정보와 규칙을 제공함.

- 카풀에 가입해 차를 나눠 쓸 경우 일인당 연간 1000파운드(약 200만 원)를 절약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10% 가량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릴 수 있음.

(www.liftshare.org/seuresites/londonliftshare//individuals.asp)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7889.aspx)

도시계획·주택

16. 시민 건강을 고려한 도시계획 (영국)

- 영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는 도시계획이 사람의 비만과 당뇨,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최근 발표함.

- 위원회는 도시계획을 통해 녹지공간 확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접근하기 쉬운 커뮤니티 시설 확보가 여러 질병과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

·위원회는 환경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도시계획가, 건축가, 건강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질의 녹지공간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자전거와 보행을 유도하는 환경은 물리적 운동량을 높일 뿐 아니라 비만 위험도 줄임.

- 대기오염은 사람의 평균수명을 7~8개월 줄이고, 매년 4조 원의 비용을 유발함.
- 공공 서비스와 커뮤니티 시설,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려운 지역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99076)

17. 미래를 위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영국)

- 영국자연협회(National Trust)는 미래의 식량 생산, 야생 보호, 오픈 스페이스 이용을 위해 좀더 체계적인 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 또한 미래의 기후 변화와 식량 생산, 새로운 건축환경 계획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를 다용도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린 스페이스’(Green Spaces-Measuring the Benefits)로 명명된 이 보고서는, 지역 커뮤니티가 양질의 지역 녹지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도시계획가와 개발업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녹지공간이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토지를 잘 이용하고 관리하면 농장, 야생지,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803693)

18. 도시와 농업·농지의 공생 관계 (도쿄)

- 도쿄都는 최근 10년 간 도시에서 농지가 줄어들어 따라 도시와 농업·농지의 공생을 주제로 ‘농업·농지를 살린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농지 보전 정책을 검토하는 ‘도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도쿄 농업 추진협의

회'를 설치하고, 학자와 도민, 농업자 등에게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

- 이 가이드라인은 농업·농지의 역할에 대한 다면적 기능을 레크리에이션·커뮤니티, 교육, 방재, 환경보전, 경관 형성 및 역사·문화 전승 등 5개로 분류해 해설함.
- 농업·농지가 가지는 기능을 살린 마을 만들기에 대해 8개 방향을 제시함.
 - 도민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농축산물 제공, 여러 지방 특색 산업과 제휴한 지역 활성화, 친밀하게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장소 제공, 도시의 새로운 커뮤니티 창출, 농업을 통한 건강하고 풍부한 심신 육성,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기여, 도시 안에 윤택함과 평온함이 살아 있는 경관 제공, 지역의 농업 역사·문화를 소중히 계승 등임.
- 농업·농지를 살린 마을 만들기의 모델을 5개로 분류해 다음과 같은 장래상을 제시함.
 - 지방 특색 산업 제휴·활성화 타입, 레크리에이션 타입, 지역 커뮤니티 형성 타입,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타입, 아름다운 전원 풍경 보전 타입 등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4/20i4s300.htm)